

# 모두투어 (080160)

기업이슈 브리프 | 미디어/엔터/통신

## Hold(maintain)

목표주가	11,000 원
현재주가	12,850 원
시가총액	2,429 억원
KOSPI(05/06)	658.4 pt

## 고군분투한 1분기! 2분기가 최대 고비

Analyst 김현용 \_ 02 3779 8955 \_ hyunyong.kim@ebestsec.co.kr

### 컨센서스 대비

상회	부합	하회
	●	

### Stock Data

90일 일평균거래대금	43.84 억원
외국인 지분율	15.1%
절대수익률 (YTD)	-29.4%
상대수익률(YTD)	-27.7%
배당수익률(20E)	2.7%

### 재무데이터 (IFRS 연결기준)

(십억원)	2018	2019	2020E	2021E
매출액	365.0	297.2	176.5	230.9
영업이익	16.6	3.2	-12.9	11.5
순이익	12.2	2.3	-8.3	8.2
ROE (%)	9.3	1.4	-7.1	7.5
PER (x)	34.4	164.9	-27.7	28.0
PBR (x)	3.4	2.5	2.2	2.2

자료: 모두투어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### Stock Price



### 1Q 별도 흑자 19억원 & 연결 적자 14억원으로 시장 우려 대비 선방

- 1Q 별도매출 373억원(YoY -52.1%), OP 19억원(YoY -78.8%): 패키지 송출객수는 YoY -60.3% 감소한 16.7만명 기록했고, 티켓 송객수는 YoY -17.4% 감소한 25.6만명으로 상대적으로 견조. 1월과 2월 중순까지 동남아/남태평양 중심 패키지 송출이 이어진 점이 경쟁사 대비 탁월한 실적을 거둔 주요 원인으로 판단
- 1Q 연결매출 442억원(YoY -52.0%), OP -14억원(YoY 적전, 105억원 감익): 별도 법인의 선전에도 주요 연결 자회사(일본법인, 인바운드) 부진이 연결 적자로 전이. 주된 원인은 매출 감소폭만큼 인건비 등의 고정비 절감이 본사만큼 나타나지 않은 점에 기인

### 4월 총송객수 YoY -92% & 7월 패키지 예약률 -89%로 침침산중

- 4월 패키지 송출객수 22명(YoY -99.98%)으로 해외여행 수요 전멸, 패키지 예약률도 5월 -99.8%, 6월 -96.8%, 7월 -89.4%로 추정이 무의미한 수준에서 수요 반등 기미는 전무
- 4월 티켓 송객수도 YoY -80.6% 감소한 1.9만명에 그치며, 2분기 실적의 근간이 될 매출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. 2분기 실적은 전분기비 적자 대폭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

### 연말까지도 해외여행 수요 회복은 장담 불가: 투자 의견 Hold 유지

- 코로나 팬데믹 종식 선언이 지금 된다 하더라도 각 국의 격리조치 해제, 비행편 및 여행상품의 부활, 그리고 문화적/인종적 차별행위의 소멸 등의 단계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살아날 수 밖에 없는 충격이 가해진 상황. 공격적으로 여행업에 대한 우호적 가정을 하더라도 연말까지 근거리(동남아) 수요의 느린 회복세,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년 이후에나 장거리 수요의 본격 회복을 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.
- 투자 의견 Hold 및 목표주가 11,000원으로 각각 기준 유지하며, 철저한 관망세 요구

모두투어 목표주가 추이		투자 의견 변동내역											
		<b>일시</b> 2018.08.06 2019.08.07 2020.01.20 2020.01.20 2020.03.11 2020.04.06	<b>투자 의견</b> Buy Buy 변경 Buy Buy Hold	<b>목표 가격</b> 29,000 29,000 김현용 25,000 18,000 11,000	과리율(%)			<b>일시</b> 2018.08.06 2019.08.07 2020.01.20 2020.01.20 2020.03.11 2020.04.06	<b>투자 의견</b> Buy Buy 변경 Buy Buy Hold	<b>목표 가격</b> 29,000 29,000 김현용 25,000 18,000 11,000	과리율(%)		
					최고 대비	최저 대비	평균 대비				최고 대비	최저 대비	평균 대비

**Compliance Notice**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(작성자: 김현용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\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**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**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개월)	투자 의견 비율	비고
<b>Sector</b>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<b>Company</b>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 <b>합계</b>	+15% 이상 기대 -15% ~ +15% 기대 -15% 이하 기대	94.4% 5.6%	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±20%에서 ±15%로 변경
				<b>100.0%</b>	투자 의견 비율은 2019. 4. 1 ~ 2020. 3.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년간 누적 기준, 분기별 갱신)